

스마트농업과 IPM기법을 활용한 녹차 수출

카고시마호리구치제채유)는 계약 농가를 포함해 약 270ha 면적에 차를 재배한 뒤 미국에 영업·가공용 말차 원료와 말차캔 등 완제품과 대만에 선차, 티백 원료를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수출 우수사업자에게 수여하는 '2018년도 수출에 힘쓰는 우량사업자 표창 농림수산대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마트농업과 지속가능한 IPM기법*을 도입해 화학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재배방법을 실천, 수출용 차의 현지 재배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회사는 차 재배 기계 5대를 이용해 해충, 이물질,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약과 제초제에 의존하지 않는 재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의 네트워크화와 시를 이용해 벌레와 서리 피해에 대처하는 등 스마트농업을 적극 도입

(*IPM기법: 「Integrated Pest Management」의 약자로,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통합 해충관리)



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본의 대 홍콩수출은 상품 카탈로그를 활용

홍콩에 일본산 선물용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링벨(주)과 이토쥬로지스틱(주)은 2016년 12월부터 부유층을 타겟으로 법인 루트의 시험판매를 거쳐, 2019년 6월부터는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홍콩은 중추절(9월~10월)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있으나, 카탈로그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는 문화는 없었다. 2016년 12월부터 시험적으로 카탈로그를 통한 주문과 판매를 한 결과,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방식이라는 반응이 많았으며, 주로 일본계 기업과 홍콩 현지은행에서 선물용으로 주문했다. 판매상품은 멜론, 감, 사과, 체리, 니훈슈를 비롯 30~40점이며, 가격은 홍콩달러 2,300HKD(약 345,500원)와 1,360HKD(약 204,300원) 2종류로 나뉜다. 향후 소득이 높은 층이 많은 대만과 싱가포르에도 수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키소바용 곤약 면의 싱가포르·홍콩 수출

곤약 산지로 유명한 군마현 소재(주)쿠로호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일본요리 아키소바에 들어가는 면을 특산물인 곤약으로 만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 곤약의 경우, 젤리 등 간식으로 제품화된 사례가 많았으나, 수출용으로 신상품 면류를 개발하게 되었다.

Key Point

수출농산물 안전성 강화 필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제품 및 재배방법 등을 차별화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농식품 수출확대 사례를 파악한다면 수출업체의 제품개발 및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한 통합해충관리(IPM기법)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한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상품 카탈로그를 활용한 수출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외 인플루언서와 오피리언 리더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한국산 농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물용 세트 등을 활용한다면 수출상품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